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3년 8월 6일(주일) 제1454호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를 보내며…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은 계속 이어진다"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 추모 기간'을 보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7월 31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를 '故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국내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 하용조 목사의 생전 〈이사야〉 44~45장 설교 영상을 상영했다. 8월 2일(수)에는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하신주 선교사, 홍성호 장로(당회서기), 온누리교회 리더십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2주기 추모예배는 박종길 목사 사회, 홍성호 장로 대표기도, 박정규 성가사, 블러썸챔버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유가족 인사 순으로 드렸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Acts29 vision의 지도자(행 28:30~31)'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꿈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담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유가족 대표로 하신주 선교사(故 하용조 목사 동생)가 "하용조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조성수 장로(김포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이 언제나 그립고, 목사님의 따듯한 미소가 생각난다"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뜻을 이어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숙 선교사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용조 목사님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현준, 김다애 기자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

차세대 여름 캠프 및 슬기로운 방학생활

2023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 여름캠프가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의꿈아이 여름캠프는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이어졌다. 꿈이자라는땅 여름캠프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한다. 꿈이자라는땅 여름캠프에서는 '부르신 예수님', '도우신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 퀴즈와 카드놀이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 여름캠프는 '익투스'를 주제로 8월 초까지 각 캠퍼스별로 진행한다.

QT하면서 예수님과 친해지도록 돕는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여름편 'QT하고 빙수 먹자'도 8월 19일(토)까지 이어진다. 차세대 QT(예수님이랑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한다. 참여 일수에 따라 빙수와 관련한 선물을 보내준다. '가족큐티모임'을 포함해서 총 24번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3

안전하고, 건강한 아웃리치!

해외 158개 팀 1,700명, 국내 254개 팀 6,757명

2023 여름 아웃리치가 한창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웃리치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손 씻기 생활화, 조리도구 소독 관리, 충분한 휴식, 안전한 식습관 실천 등 여름철 건강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58개 팀 1,700명, 국내 254개 팀 6,757명이 참가한다(8월 4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는 탄자니아, 필리핀, 캐나다, 베트남, 레바논 등 32개국으로 간다. 성인공동체 85개 팀 613명, 대학청년부 56개 팀 765명, 차세대 17개 팀 322명이 참가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농어촌교회, M센터, 기관 등지를 찾아가 환경미화, 이주민 섬김, 블레싱,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등을 한다. 성인공동체 124개 팀 4,059명, 대학청년부 119개 팀 2,443명, 차세대 11개 팀 255명이 참가한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20일(일)까지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한다.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비공개 지역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 2023) 하거나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1등 30만 원(1팀), 2등(20만 원 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 외식 상품권(배달앱)을 준다. 시상한 영상은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onnuri.acts29)과 페이스북(@onnuriCommunityChurch)에 게시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간증과 사역 사진을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까지 간증(A4용지 1장, 글자크기 10포인트)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원고를 보낸 성도들을 추첨해서 상품도 준다.

이지훈 형제(SNS청년부)는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각 공동체(국내), 02-3215-3211(해외)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독교 세계관_ 학생인권조례로 무너져 내리는 교실 3면 Life_ 보석을 캐는 부부싸움 6면 *다음주 신문(8월 12일자)은 여름휴가 관계로 휴간합니다.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악행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창 4:23~26, 5:21~24

"악행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가문 되십시오."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은 두 후손의 족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후손의 족보가 나타나고, 5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셋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셋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노아까지 소개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는 아담과 같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를 창조기사부터 다시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2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3절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셋의 후손 에노스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창 4:26).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비로소 공적인 예배가 확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이한 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없습니다. 아담에게서 바로 셋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들이 연대기적인 순서로 빠짐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적에 따라 중간에 생략이 많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서 중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셋의 후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녹과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에서도 에녹이 나오고, 셋의 후손에서도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가인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살인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셋의 후손인 라멕은 경건한 에녹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에녹을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희망의 약속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아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장차 다가올 홍수 심판을 준비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 5장은 셋의 후손을 한 사람씩 대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대조도 나타나지만,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 라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셋의 후손 중에서는 에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족보상으로 볼 때 라멕은 가인의 일곱 번째 후손입니다. 에녹은 셋의 일곱 번째 후손입니다. 성경의 족보, 특히 〈창세기〉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인물을 일곱 번째 후손의 위치에 놓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도 14대로 끊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생략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져 태어난 많은 사람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몇 년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죽음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은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 은혜를 증거합니다. 셋의 후손이 세대마다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한 것입니다. 셋도 912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에노스만 언급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기억할만한 인물, 역사에 의미가 있는 에노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억할만한 인물을 그다음 세대에서 언급함으로써 족보의 목적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시대의 에녹

〈창세기〉 5장의 모든 족보가 '살다가 죽었습니다'라고 여덟 번 반복됩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사이클을 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24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당시 사람들과 비교하면 365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에는 다른 의미와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족보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고 했는데, 에녹은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와 충격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히 11:5).

삶과 믿음의 모범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오래 사는가입니다. 인생의 길이보다 중요한 게 의미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는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창 5:21~22).

므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다른 족보에서는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 또는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합니다. 므두셀라를 낳은 사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정적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므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가 '그가 죽는다', '창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해석합니다. 여러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므두셀라의 출생과 더불어 심판의 예언을 에녹에게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이 온다'입니다. 창이 있는 이가 죽는다는 것은 마을을 지키는 누군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므두셀라를 낳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장차 올 심판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에녹이 선지자로서 장차 올 심판을 예언했고, 그 심판의 계시를 받은 시기가 므두셀라를 낳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녹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이들에게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구원의 길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시대의 에녹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시대의 에녹처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알리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신다!

므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창 5:25).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창 5:28).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창 7:11). 말씀에 나온 이 숫자를 모두 더하면 969세입니다. 이 해는 므두셀라가 죽은 해요, 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므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결과로 오래 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을 1천 년 가까이 연장해 주셨기에 가장 오래 산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창세기〉 4~5장에서부터 예언이 주어졌고,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 4대에 걸쳐 1천 년 가까이 장차 올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계시를 처음 받은 에녹이 300년 동안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후손 므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절정이 노아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창 5:29).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천 년 가까이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인간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심판의 계시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 라멕처럼 잔인한 악행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 므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구원을 전할 것입니까? 악행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인권조례로 무너져 내리는 교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구타했고,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밟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같은 학생에 의해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교사가 그 행동을 강하게 저지했을 때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남자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교사 뒤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사용하는 장면을 다른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의 조회 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사건이 있었다. 교사들은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을 제지 및 훈육하거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 부당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말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한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동료 교사 1,800여 명이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그 외 여러 유사한 사건들로 교육 현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정상적인 학부모라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주범으로 지목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각 지역 교육청이 지방 의회를 통해 그 지역에서 제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16개 시도 중에 경기(2010),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 충남(2020), 제주(2020) 등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전국 교육회복교사연합은 이 조례의 시급한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무엇인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대표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왜곡된 인권과 젠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천부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권에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계속 실패하자 이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조기성애,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인권으로 가르친다.

둘째,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게 만든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 "반윤리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 다른 법의 제정이나 조례의 부분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셋째, 교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있다.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사 고발조항'을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면 증거를 잡는다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 교사들의 훈육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는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 시행 직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급증했다. 학생에 의해 폭행,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2016년 41.6%에 이르렀고, 교사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교육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넷째, 교실 내 교권이 떨어지면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학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다섯째, 인권의 보장은 헌법과 법령, 즉 국가에 위임된 책임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게 아니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제정하고 그를 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해 책임추궁까지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법에 어긋난다.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운동이 여러 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그러나 새내기 담임교사의 자살사건 이후 이 조례의 제정을 주도했던 교사노조가 교권 강화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교사를 향한 공격을 지목하고, 교권 강화를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교육 현장에서 더욱 완벽하게 배제할 조례 개정 혹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좋은 교육을 위해 '군사부일체'라 해서 선생님께 왕이나 부모와 같은 높은 권위를 위임했다. 그러나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를 이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실에서 이러한 권위를 해체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유럽의 68혁명 구호나 청소년 홍위병을 앞세워 한 세대 교사들을 몰살시킨 중국의 문화혁명에 비견되는 파괴적 효과를 우리 사회에 나타낼 게 분명하다. **이 조례를 입안했던 교육자들은 오늘날의 사태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동시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조례에 대해 의견을 제대로 표하지 못했던 학부모와 교사들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의사를 표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협조하고 격려하는 관계여야 한다. 청소년기 학생은 모든 삶의 기준을 정립해 가는 시기이고, 바른 기준에서 벗어나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부모의 훈육을 인권침해라 규정하는 반인륜적 조례이다. 러셀 커크가 설파한 것처럼, 법을 그 윤리의 근원에서 단절시키는 것은 법 지배에 끔찍한 타격을 입힌다. **반윤리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원인을 그대로 둔 채 반인륜적인 또 다른 법의 제정이나 조례의 부분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인종 문제와 다문화사회

강애리 목사
(드보라선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

'1988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소득이 향상되면서 소위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213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를 기록했다. 취업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소위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이 늘면서 그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거로 추산한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학계의 정의를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초근접 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해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및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면서 다문화가족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한 부모 다문화가족도 늘고 있다. 다문화 초중고생이 17만 명까지 늘었는데 학교 적응도는 낮아지고 있고, 대학 진학률이 40.5%로 전체 진학률 71.5%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 같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신구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는 모든 과목의 중요한 주제로 선정되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과 다문화 문제를 소수자 인권이라는 이

> 그리스도의 주권과 양립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풍성함을 보존하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슈로 다루고 있어서 그 속에 숨겨진 반기독교적 관점과 목적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구의 이미 형성된 주택단지 안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을 보면, 다문화라는 용어로 외래의 특정 종교를 보호해서 그들의 오일머니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역 원주민들의 권익 또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와 인력난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인종적, 다문화적, 다종교적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어떤 문제이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는 그의 저서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다원주의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네 가지를 주목하자(행 17:22~31). 그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성경적 계시만이 우리를 인종적 교만과 편견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소수자 보호라는 핑계로 기준을 마음대로 바꾸는 진리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역사의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주권과 양립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풍성함을 보존하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허울만 좋은 인종적 통합이 아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종 간의 화해를 넘어 그리스도 중심의 진정한 화해와 하나 됨을 이루는 궁극적 통합의 완성임을 천명해야 한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청사진(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속받은 자들(계 7:9))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창 2:17)

에덴동산에서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포함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은 먹는 일이 생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욕망과도 깊이 관련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탐욕이 되고, 죄를 낳게 된다. 배고픔에서 나오는 욕망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은 생존을 위한 것 그 이상이다. 우리도 매일 경험하지만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망이 결코 작지 않다. 맛있는 음식이 되려면 맛뿐 아니라 모양, 색깔 등 시각적인 요소가 매우 훌륭해야 한다. 인류의 첫 여자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녀는 먹고 싶은 욕망에 취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자신의 시각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높게 두었다.

먹는 것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이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소화되어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불순종의 '악'을 몸 안으로 들여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한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은 이처럼 불순종을 통해 '악'을 경험함으로써 '선'의 삶을 잃어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일상의 삶에서 당연히 누리던 '선'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 아담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잃어버렸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악'을 경험함으로 '선'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는 그의 범죄함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을 몸에 지닌 채 '선'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몸에 이미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선'에 참여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지만, 믿는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성육신한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어린양이시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죄 아래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이 되셨다. 아담이 하나님의 선함과 함께 있을 때 악함을 선택한 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악함에 있을 때 순종의 선함을 선택하셨다.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순종, 즉 '선'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신비다. 그러나 악함을 경험하면 선을 잃어버리지만, 선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저절로 악함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흰 도화지에는 조금만 먹물이 묻어도 얼룩이 되지만, 얼룩진 도화지에 흰색이 조금 묻는다고 흰 도화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선'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악'이 없어지고 '선'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얼룩진 도화지가 성령님으로 인해 불타 없어지고, 깨끗한 흰 도화지로 바뀌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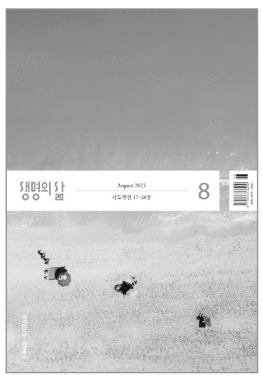
성찬식은 단순히 예배 시간이 길어진 주일에 반복되는 의식에 불과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인 나를 지워버리고, 순종의 그리스도인 선으로 대체되는 시간이다. 일상의 평범한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유는 성찬식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불순종의 내가 죽고, 순종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당부 아닐까?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사명의 길

8월 7~13일
〈사도행전〉 19:11~21:26



묵상포인트 1: 복음 전도에는 영적 전쟁이 따른다. 그러나 주님 앞에 어둠의 세력이 굴복하고 만다. 바울이 머문 에베소는 '아데미'(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숭배 중심지였고, 마술도 성행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에베소 사람들이 보인 믿음의 결단은 어떠했는지, 아데미 신상 영업자들의 선동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묵상하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축출과 치유 이적이 나타난다.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바울을 따라 하다가 악귀 들린 이에게 제압당한다. 이를 본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마술사들은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불사른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자 무리를 선동한다. 분노한 무리가 바울 일행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에 모이지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불법 집회를 해산한다.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마케도니아)로 향한다.

묵상포인트 2: 주님 일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그 어려움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다. 동족 구원을 갈망하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다. 다시 보지 못할 이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에서 제자의 사명과 인내와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 인해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한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늦은 밤까지 말씀을 전할 때 3층 창가에 걸터앉아 졸던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를 다시 살리시니 모두가 큰 위로를 받는다. 이후 밀레도에 이른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한다. 그는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한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그들을 맡기고 함께 기도한 다음 작별한다.

묵상포인트 3: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사명의 길을 치우침 없이 걸어간다. 만류하는 동역자들의 권면에도 물러서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으로 담대히 행한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각오와 결단이 어떠했는지 묵상하자.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하자 그곳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한다.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 집에서도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을 예언한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굳건히 표명한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이방 선교 사역을 보고한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오해와 충돌을 피하도록 서원자들의 결례(정결 의식)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바울이 그대로 행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내가 버려야 할 어둠의 일,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버리자. ▶복음은 이론이 아닌 능력이다. 주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주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구하자.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제자를 양육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길 자리가 어디인지 살피고 실천하자. ▶제자들이 바울의 안위를 염려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면했지만, 바울은 사명을 완수하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 완수를 위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돌아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동생을 위해서!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제 동생이 조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제하던 친구와도 헤어지면서 마음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관계와 진로 문제를 겪으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깊은 우울감 속에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동생이 음모론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영상들을 보고, 급기야 가족들을 속이고 이단성 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단 시비가 있는 극단주의 선교단체에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단체에서 이스라엘 및 근처 국가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현재 제 동생은 위장의 극심한 통증으로 쌀죽만 먹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제 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신앙과 평안을 회복하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제 동생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푸른누리공동체
인천 강화도

‘선교공동체’라는 푯대를 향한 행진

푸른누리공동체는 30~40대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가 아직 없는 가정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곡캠퍼스에서 주일 3부 예배를 섬기고 있다. 올해 초 순장과 다락방장 그리고 공동체 사역자 등 리더십 70% 이상이 새롭게 세워졌다. 그만큼 새로운 활기와 변화라는 기대감이 공존해 있기에 어느 때보다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선교공동체’라는 푯대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선교공동체’라는 푯대를 향한 행진에 앞서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분명히 이 땅에도 처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었다. 그 선교사들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푸른누리공동체는 이방 선교사들이 이 땅에 피와 눈물로 뿌려 놓은 헌신과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푸른누리공동체가 인천 강화도로 국내 선교 순례를 다녀왔다.

푸른누리공동체의 올해 여름 일정은 크게 두 가지다. 7월 다녀온 ‘인천 강화도 선교 순례’와 8월 가게 될 ‘몽골 아웃리치’가 그것이다. 현장 중심 선교를 떠나기 전에 지난 5월 ‘공동체 미션 비전집회’를 열었다. 2000선교본부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임훈 장로님과 정대서 장로님의 선교특강을 들었다. 이 집회에서 많은 공동체 지체가 감동과 은혜를 받아 선교 순례와 해외 아웃리치에 신청했다.

선교를 향한 우리의 첫 발걸음은 한국 선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인천 강화도’였다. 강화도를 선교 순례 장소로 정한 이유가 있다. 강화 전역으로 복음의 줄기가 뻗어갔던 선교 역사를 오롯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 이후 1893년 조지 존슨 선교사가 강화에 들어와 ‘강화교산교회’를 설립하고, 강화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화도에 가면 역사의 순간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7월 1일, 화창한 날씨 속에서 강화도 선교 순례를 시작했다. 이번 선교 순례는 역사문화해설가 임찬웅 집사님(남양주온누리교회)이 섬겨주셨다. 강화교산교회를 시작으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사회운동과 애국정신이 서려 있는 강화중앙교회, 한옥으로 지어진 성공회강화성당, 조선군의 군사시설인 월곶돈대 연미정을 방문했다. 우리는 월곶돈대에 올라 연미정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북한 땅을 바라보았다. 박천종 목사님의 인도하에 모두 한마음으로 강화의 복음 줄기가 북녘땅까지 뻗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때 비로소 푸른누리공동체를 강화도로 인도하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선교를 향한 푸른누리공동체의 두 번째 발걸음은 몽골 울란바타르로 향한다. 몽골에서 주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성령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이병후 집사
(푸른누리공동체 총무, 선교사역팀장)

인천온누리교회
튀르키예

끝없는 기쁨의 시작

지난 7월 5일, 셀렘과 기대를 안고 튀르키예로 생애 첫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별로 흩어져 현지인들을 만나러 갔다. 내 계획과 정반대의 일들이 펼쳐졌다. 낯선 그 땅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예배와 순예배에서 내게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주셨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앉은뱅이 이야기였다. 그 말씀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알지 못했다.

현지에서 처음 타는 지하철, 현지어로 말을 걸어오는 역무원 등 낯선 상황이 온몸에 진땀이 나게 했다. 하지만 곳곳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숨겨두셨다. 그 도우심을 하나씩 찾고 만날 때마다 내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좁고 단단했는지를 깨달았다.

인천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튀르키예 현지인들과 교제하고 있다.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무슬림과 친구가 되지 못했던 나의 지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만의 친구 조건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있었다. 히잡을 쓴 이들은 나에게 친구와 선교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문득 내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 틀에 갇힌 모습들이 나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뿌리내리고 있을지를 생각하니까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에 병이 든 채 지냈던 나의 38년이 그날 아침 읽었던 앉은뱅이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깨닫게 하셨다. 나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알게 하셨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와 동일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튀르키예의 모든 영혼, 아웃리치를 함께 떠난 팀원, 이곳의 선교사님 가정에도 허락된 사랑임을 알게 하셨다.

선교사님이 아웃리치 동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 첫 질문은 “왜 내가 여기 왔는가?”였고,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몸부림은 무엇인가?”였다. 내가 내린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나를 다시 보기 위해 이곳에 오게 하셨다”였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타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기”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을 입는 것, 거룩함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버려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버리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아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등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몸부림이자 변화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셨다.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낯선 땅에서 말씀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르치시고, 회개와 감사를 허락하셨다. 열흘 동안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의 미흡한 몸부림이 끝없는 기쁨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웃리치 팀원 모두 큰 부상과 마찰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던 시간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 각자의 필요에 맞는 것들을 공급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을 쏙 빼닮은 딸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박지연 성도
(인천온누리교회)

멘토가 멘티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주변 친구들과 제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와 함께 어려웠던 시절을 나눈 적이 있다. 아내는 학창 시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었다. 그로 인한 심한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고자 대학교 내 상담프로그램을 찾았다. 그때 상담사가 "돈 벌면 해결됩니다"라고 답했다. 이 간결한 대답이 아내에게 위로가 됐다고 한다. 대학 졸업 이후 아내는 직장을 가졌고, 그 상담가 말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낮아진 자존감이 해결이 되는 듯했다. 이처럼 낮아진 자존감은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회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들이 다가온다.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 제목처럼 인생은 쉽지 않다.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겪는 실패들은 자존감을 더욱 낮게 만든다.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자존감이 쉽게 무너진다.

특히 이 시대 다양한 SNS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하지만 SNS는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지 못하고 가장 예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대에게 있어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 1위가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SNS를 볼 때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더욱 낮아지게 만든다.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의 가치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타인의 무가치한 말들이나 시선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것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직업을 갖고 싶고, 집을 소유하고 싶고, 옷을 입고 싶은 것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되지 않으려는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애써 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다. 누구의 소유냐가 어떤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큰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의 가치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가치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물건의 가치는 사는 사람이 지불하는 값으로 결정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을 이유가 없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 구구단을 암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기를 권면한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외워서 문제를 풀다 보면 삶에서 이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의 오답, 주변 친구들의 오답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리를 되뇌며 풀어가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김동균 멘토
(부천드림플러스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보석을 캐는 부부싸움

광산에서 보석을 캐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바위를 부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보석은 땅속에 숨겨져 있다. 보석을 캐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고,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석을 캐기 위해 땅을 파다가 암석층을 만나면 광부들은 반드시 암석을 깨트린다. 암석을 깨뜨려야 그 속에 숨겨진 보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단한 바위에 숨겨진 귀중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암석이 터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위가 부서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귀한 보석을 얻을 수 없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서지고 깨지는 경험을 한다. 부부는 금광의 바위가 터지고 깨지는 것과 같은 충돌을 경험한다. 자신의 기대와 크게 달라서, 실망스러운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화내고 비난한다. 한순간 관계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부부 갈등과 순간적인 대립의 시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부는 다양한 이유로 충돌할 때가 있다.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틀어져 싸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는 관계가 부부 관계다.

부부가 충돌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더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부부가 충돌하고 깨지는 순간을 가장 귀중한 보석을 얻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다. 대립하고 충돌할 때 부부 관계는 마치 단단한 암석이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그동안 쌓아둔 사랑과 신뢰가 모두 부서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충돌 직후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한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건강한 부부라면 그동안 부부 관계 속에 숨어 있었던 귀중한 보석을 얻어야 한다. 늘 온화하고 성품이 좋았던 배우자와 심하게 갈등하고 부딪히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것처럼 느낀다.

갈등과 충돌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자의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이다. 부부가 충돌을 경험하면서 단단한 표면 아래 있었던 보석이 튀어나오게 된다. 귀한 것들은 눈물과 슬픔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그저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보석으로 발견된다. 부부가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욱 관계는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서로를 향한 이해의 깊이가 훨씬 깊어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부부의 충돌 경험은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하는 계기가 된다. 자신 안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직면하게 된다. 자신에게 있는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용량이 한없이 작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자신 안에 있었던 잊어버린 슬프고 힘든 기억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 늘 바빠서 방치됐던 가족이 떠오를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늘 힘겹게 해결해야 했던 버거운 삶의 자신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부부의 충돌 이후 자신의 내면을 돌아 볼 때 종종 이런저런 과거의 아픔과 힘들었던 기억들이 눈물과 함께 보석처럼 빛난다.

부부는 심각한 충돌 이후 흩어져 있는 흙먼지 만을 보지 말아야 한다. 널브러져 있는 돌가루만 봐서도 안 된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절망, 결혼 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기 학대 같은 것들이 널브러진 흙먼지와 돌가루라고 할 수 있다. 부부의 충돌 사건 이후 이것들만 부부 사이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꽁꽁 숨겨진 귀중한 보석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된다.

두 사람이 발견한 보석 같은 경험과 기억들을 소중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서로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부부 충돌 이후에 그저 감정만 상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강한 충돌 이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더 많은 것, 더 깊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평소에는 결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묵상과 사색에 빠지면 깨달아 얻는 것이 많아진다. 부부의 충돌은 자신을 더 깊고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한다. 배우자를 더 깊고 세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무수한 경험과 기억들이 당신의 현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에 대한 동의와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생활 가운데 심한 부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인정할 것이다. 신앙적인 면에서 성장하게 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경험들은 한 개인이 결혼생활 가운데 얻는 보석 같은 귀한 것들이다. 평온하고 행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부부의 관계가 끝날 것 같은 충돌 이후에 얻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 부부 충돌 이후에 널브러져 있는 흙먼지와 돌가루, 그리고 그 가운데 흩어져 있는 금과 보석 같은 귀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얻어야 할까? 당연히 보석과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얻어야 한다. 서로의 충돌 경험을 통해 부부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새이름 '두란노국제선교회'

창립 30주년 맞아 단체명 변경 … 8월 2일 현판식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지난 3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단체명을 '두란노국제선교회'로 변경했다. 지난 8월 2일(화) Acts29비전빌리지 1층 현관에서 '두란노국제선교회' 현판식이 있었다. 이재훈 담임목사, 한충희 목사(두란노국제선교회 본부장), 온누리교회 리더십, 선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두란노국제선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났다"면서 "앞으로도 두란노국제선교회를 비롯해 온누리교회 모든 선교기관이 합심해서 Acts29 비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두란노국제선교회 현판식에 참석한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리더십들.

한충희 목사는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를 하면서 Acts29 비전을 이뤄가자는 의미"라면서 "두란노국제선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화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응원과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8월 6일 오후 2시 안산M센터, 7개국 27명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이 8월 6일(일) 오후 2시 안산 온누리M센터(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에서 열린다. 유아세례와 성인세례는 노규석(온누리M센터 센터장) 목사와 국가별 예배담당자 및 각 지역 센터장(고원규, 김연경, 마놉, 박창홍, 베르헤, 송순동, 아미, 은, 이정빈, 조나단, 전홍렬)이 집례한다. 올해 연합세례식에서는 한국, 몽골,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 7개국에서 온 이주민 27명이 세례를 받는다. 유아 3명, 아동 4명, 성인 20명이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매년 연합세례식을 열고 이주민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세례 간증

인생이 달라졌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어릴 때 공부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소학교 6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다.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장 역할 하는 엄마를 도와 밤낮으로 허드렛일을 했다. 3일 일하면 100바트(한국 돈 3,700원)를 겨우 버는 고단한 삶이었다.

16살에 결혼했다. 6개월 만에 임신했는데 남편이 돈 벌러 남아시아로 떠났다. 혼자 집에 남아 첫째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해야 했다. 첫 아이가 한 살이 되던 해 남편이 집에서 한 달 머물렀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생겼다. 남편은 또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 떠났다. 3년 뒤 남편이 돌아왔고, 우리는 방콕으로 이사해서 일을 시작했다. 택시 운전과 재봉공장에 일하면서 식료품을 판매하는 일도 했다. 하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몇 년 전 둘째 아들이 가정의 빚을 갚으려고 한국 고용노동부 근로자 취업 시험에 응시했다. 어린 아들을 타국에 보내는 게 안쓰럽고, 염려돼서 2018년 함께 한국에 왔다.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산M센터 태국어예배에 왔다. 이곳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돌봐줬다. 함께 성경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면서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줬다. 안산M센터 덕분에 아들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 전에는 참을성이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타인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도박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던 내가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그들도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 Sasipa 자매(안산M센터)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온누리 전도콜센터에 전도 요청하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전도하고 싶은데 막막하다면 '온누리 전도콜센터'(이하 전도콜센터)에 전도 요청하면 된다.

온누리 전도콜센터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긴급하게 전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돕는 사역이다. 전도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적인 전도훈련을 받은 전도사역자들이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 80여 명의 전도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다.

전도콜센터에 전도 요청하고 싶은 성도들은 전용 전화(02-3215-3377)로 전화하면 된다. 전도요청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공동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도요청서는 서빙고온누리교회 헌금봉투작성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다. 전도 대상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호스피스, 병상 환자 등이다.

/ 홍하영 기자

화요성령집회

'Nothing is impossible'

대학청년부 8월 화요성령집회가 'Nothing is impossible'을 주제로 이어진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8월 8일 이우람 목사 '대적을 제압하는 찬양'(대하 20:14~30), 15일 최성민 목사 '미움을 극복하는 사랑'(요일 2:3~11), 22일 이서진 목사 '성벽을 돌파하는 순종'(수 6:1~21), 29일 최성민 목사 '불신을 넘어서는 믿음'(삼상 23:1~6)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NGO 더멋진세상,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

모기장 배포, 보건 및 위생환경 개선

NGO 더멋진세상이 우간다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보내기 캠페인'을 8월까지 실시한다. 남수단 난민정착촌에 모기장을 보내고 싶은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계좌(하나은행 573-910009-09905)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은 모기장 배포와 보건 및 위생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말라리아 감염은 난민촌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우간다 팔로리냐 남수단 난민정착촌 보건소 외래환자 70%가 말라리아 환자이고, 입원 환자 90%가 중증 말라리아 환자다. 난민촌에서 모기장은 말라리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팔로리냐 난민촌에는 24만 명이 쓸 모기장이 필요하다. 모기장 시장 판매 가격은 7,000원 정도다. 말라리아 치료약은 일반약 어른 2,000원, 아동 1,000원이고, 신약은 어른 6,000원, 아동 3,000원이다.

문의: 02-2271-2248

온 누리가 함께 만드는 〈온누리신문〉

〈온누리신문〉을 온 누리가 함께 만든다. 〈온누리신문〉에서 말씀 해설, 중보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 해설은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주는 코너다. 중보기도 제목은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daa2@onnuri.org)이나 온누리신문 카카오채널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내용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255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신청

255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6년 미만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에서 열린다. 수강신청은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인 기준 30만 원이다.

결혼예비학교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손철우 교수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황규복, 김숙경 부부 '너와 나, 다름의 축복', 김의수 센터장 '신혼, 재정의 첫걸음', 이범석, 이연숙 부부 '하나됨의 비밀, 성', 김숙경 소장 '건강한 자아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수강생 모집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바른 성 가치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교사, 학부모, 목회자가 대상이다.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1만 원. 8월 1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1

Love Sonata

미야기 기·도·제·목

- ■8월 6일(주일) 러브소나타 '미야기'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 ■8월 7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미야기(센다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기를
- ■8월 8일(화) 일본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 ■8월 9일(수)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출연진들에게 영적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 ■8월 10일(목) 미야기 지역 일본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 ■8월 11일(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영적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 ■8월 12일(토) 일본인들의 마음이 열려 러브소나타에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박씨마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싱루아마눕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
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아르뚜르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제인량
존 굴레이즈 차제이미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권대식 권예람 김가희 김기태
김디모데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의연 김종균 김정무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한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안류택 양현모
염경덕 오국헌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동준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시하라 노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정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상원 정성민 정은영 정연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옥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일 김정민
김정훈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윤영각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헌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탁 이민욱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텐치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겸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양재 주차 섬김 팀원 모집
시간: 1조(일요주일 08:00~11:30), 2조(일요주일 10:00~14:00) 선택 가능
장소: 사랑홀, 일동제약, 교회 주변 등
모임: 주차사역실(서점 옆 계단 이용 좌측)
문의: 정광진 팀장(010-3811-6252)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헌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헌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헌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7/25(화) 송파A 김지연 권사 모친상 고 이희준
7/26(수) 도곡 양기철 집사 모친상 고 조준예
7/28(금) 서초C 이경애 권사 시모상 고 김혜식
7/28(금) 신용산 한대수 집사 부친상, 유혜민 집사 시부상 고 한광석
7/28(금) 김포 김희연 집사 남편상 고 이필웅
7/29(토) 가정사역 김남순 권사 부친상, 정성진 집사 빙부상 고 김순복
7/29(토) 강남E 이현일 성도 모친상 고 노귀례
7/29(토) 도곡 이경조 성도 모친상 고 김화순
7/30(주일) 영등포구로 한영미 집사 모친상 고 손정호
8/2(수) 동대문중랑 이익성 집사 부친상, 조상희 권사 시부상 고 이수영
8/3(목) 강남C 고연미 성도 시부상 고 서정숙